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98.97	↑ 코스닥	740.29
	(+1.30)		(+5.94)
↓ 금리 (미국 9년)	2.340	↓ 환율 (원·달러)	1377.10
	(-0.007)		(-3.00)

전자업계
러-우 종전
예의주시
02



전국에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 당선 확실

출구조사서 51.7% 득표 예측
대구·경북 뺀 전국서 우세 기록
민주당 계열 첫 과반 득표 예상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포인트(p) 차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며 당선이 확실해졌다. 출구조사대로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중 최대 득표를 기록한다. 또,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방송3사(KBS·MBC·SBS)가 이날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12.4%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은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예측됐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이번 선거가 12·3 내란으로 인해 촉발됐기에, 국민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파면을 이끈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22년 대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성공하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출구조사 수치대로 득표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을 제치게 된다. 또 6공화국

출범 후 민주당 계열 후보는 모두 40% 초반에서 후반대 득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민주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50% 이상 표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TK와 PK(부산경남)를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큰 차이로 이길 전망이다. 특히 PK 지역은 이 후보와 김 후보(부산 49%, 경남 48.8%)의 차이는 약 6%포인트 가량밖에 나지 않아, 민주당의 동진(東進)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72.7%)와 50대(69.8%)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성별로도 ▲남성 이재명 48.3% vs 김문수 39.4% ▲여성 이재명 55.1% vs 김문수 39.2%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4일 당선이 확정되면 국립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갖고 바로 대통령실로 향할 전망이다. 엄중한 상황 하에 출범한 정부 인만큼 신속하게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4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72일만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하며, 청와대를 정비해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제 21대 대선 국민의 선택
〈관련기사 2·8면, L6·L8면〉

내수침체·수출부진 ‘이중고’… 경제 반등 구조개혁 절실

이재명 정부, 과제는

‘정치안정+경제회복’ 시험대
미국과 통상 전략 재정비 절실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제로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라는 협공에 직면해 있다. 일단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은 184일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침체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

전반은 위기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전례없는 난관을 극복해내야 한다.

◆내수 경제, 바닥 모를 침체 늪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2025년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보고,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2.2% 성장률에서 반토막난 수준

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 부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부진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묘책은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대외 리스

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다. 이미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에다 10%의 기본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늘 7월 8일 이후엔 추가 15%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가가 예고된 상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직접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반해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정책 발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김종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민주, 이달 12~13일 원내대표 선출… 권리당원 투표 반영 첫 선거
▲김용태 “민주,李 당선시 즉각 ‘재판정지’ 추진할 것… 범죄도피 우려”
/사진 뉴시스

▲자동차영업소·야구부훈련장·고깃집… 눈에 띄는 21대 대선 이색투표소
▲민주,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에 “철저하게 조사·진상 규명”

▲대통령실, 새 정부 인수인계 준비 마쳐… 별정직·파견공무원도 떠나
▲“오래 살아 투표하는 게 행복” 109세 어르신도 투표 참여